文祿·慶長의 役 연구의 학설사적 검토

나카노 히토시(中野等)

머리말
Ⅰ. 근세 전기 일본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위치 설정
Ⅱ. 근세 후기 일본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위치 설정
Ⅲ. 근대 일본의 성립과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Ⅳ. 패전 이후 80년대에 이르는 연구 동향
Ⅴ. 관심의 다양화와 문제점

머리말

이른바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이라고 부르는 전쟁에 대하여 어떤 명칭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논의 자체가 이미 '學說'史를 이룬다고 할 수도 있다. 동시대의 사료에는 '唐入り' '大明へ御道座'라는 표현이 보이지만, 근세 초기에는 堀正意의 ≪朝鮮征伐記≫로 대표되듯이 '唐入り'는 '朝鮮征伐'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가는 듯하다. 그밖에 '朝鮮陣' '高麗陣' '征韓'이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된다. 어찌됐든 '征明' 등의 표현처럼 중국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보다 '朝鮮' '高麗' 등을 씌워서 전쟁을 호칭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근대로 들어서서 한반도가 식민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朝鮮征伐'이나 '征韓' 등의 표현을 피하고 '文祿의 役'및 '慶長의 役'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합쳐서 '文祿·慶長의 役'이라는 명칭이 정착한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일본의(내지 일본에서 본) 입장이며,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壬辰倭亂'과 '丁酉再亂', 중국에서는 '抗倭援朝' '万曆朝鮮役' 또는 '万曆日本役'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이다.

그 후 60년대로 들어서면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파병이 '侵略'행위라는 의식이 강해지게 되며, 일본에서는 '朝鮮侵略'이라는 호칭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한편, 일본은 물론 원래부터 한국·중국의 풍부한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전쟁이라는 호칭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제안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貫井正之씨는 豊臣秀吉의 대외적인 정복의도 전반을 검토하고 책 이름에 '海外侵略'이라는 문구를 채택했으며(≪豊臣政權의 海外侵略과 朝鮮義兵硏究≫ 靑木書店 1996), 中野는 파병의 목적이 어디까지나 明나라 정복에 있었다고 하면서 '大陸侵攻'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물론 '大陸'에는 한반도도 포함된다. ≪秀吉의 軍令과 大陸侵攻≫ 吉川弘文館 2006). 또 李啓煌씨도 전쟁의 명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전쟁이 동아시아 전 지역과 관계되는 '國際的 戰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1997).

말할 필요도 없이 명칭에 대한 재고는 이 전쟁의 '一國史的 이해'를 다시 파악하려는 흐름과도 관련되어 있다. 즉 이 전쟁을 새롭게 '동아시아 삼국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재검토하려는 국제학술회의는 전쟁의 명칭을 '壬辰戰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鄭杜熙·李璟珣 편저 ≪壬辰戰爭≫, 여기서는 金文子 監譯·小幡倫裕 譯 일본어판을 이용. 明石書店 2008). 이처럼 최근에는 일본·한국·중국에 공통적인 명칭을 생각해 내야 한다는 논의도 있는 모양이지만, 전쟁의 명칭이 역사의식의 반영인 이상 그것도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부질없는 혼란을 피하는 의미에서 여기서는 그와 같은 현상 인식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전쟁의 명칭에 대하여는 2005년 11월에 간행된 ≪日韓歷史共同硏究報告書≫ 第2分科篇(이하 ≪共同報告書≫로 약칭함)에 따라 일단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겠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學說史에 대해서는 ≪共同報告書≫에서 이미 주제별로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 성과를 토대로 하여, 다소 잡박하지만 時系列的인 관심에서부터 검토하려고 한다.

Ⅰ. 근세 전기 일본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위치 설정

먼저 앞에서 말한 ≪共同報告書≫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세 일본(江戶時代)의 학설사에 대해서 전후기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 두겠다. 이와 같은 관심

은 이미 先學들에 의하여 일정한 정리가 시도되었다. 예를 들면 三鬼淸一郎씨에게는 <江戶時代에 있어서 朝鮮役의 평가에 대하여>(≪歷史評論≫ 373호 1981)가 있으며, 北島万次씨는 ≪豊臣政權의 對外認識과 朝鮮侵略≫(校倉書房 1990) 제1장 '豊臣政權의 朝鮮侵略에 관한 學說史的 檢討'의 제1절과 같은 연구를 시도했다. 여기서도 그러한 연구 성과를 학습하면서 논술을 계속하고자 한다.

근세 일본에 있어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생각할 때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豊臣秀吉의 傳記類, 즉 각종 <太閤記>일 것이다.

> 근세 일본에 있어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기억과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먼저 이 전쟁을 실제로 체험한 세대와 그 이후의 세대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宇都宮高麗戰歸陣物語>와 <梨羽紹幽物語> 등은 실제로 종군했던 경험을 기록한 것으로서 史料로서도 중요하지만, 학설사의 정리라는 이 글의 작업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覺書類에 대해서는 배제하기로 한다.

다양한 히데요시의 傳記 중에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정리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은 <信長公記>로 알려진 太田牛一의 <豊國大明神臨時御祭禮記錄> 및 小瀨甫庵의 <太閤記>일 것이다. 太田牛一에게는 히데요시의 傳記로서 <大かうさまくんきのうち>가 알려져 있는데, <豊國大明神臨時御祭禮記錄>은 그 續編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하여 <大かうさまくんきのうち>에서 종합적인 기술을 한 것도 아니지만, <豊國大明神臨時御祭禮記錄>을 언급하며 거듭되는 전쟁에서 일본은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며 히데요시의 공적을 찬양하고 있다. 이어서 寬永 3년(1626)에 성립한 것으로 보이는 小瀨甫庵의 <太閤記>(이하 甫庵 <太閤記>)는 '凡例'에서 "秀吉公의 일도 善을 善으로, 惡을 惡으로 이를 기록한다"고 적은 것처럼 秀吉의 事績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본질은 당시 발흥하던 儒學思想에 기초한 史論書라고 할 수 있으며, 반드시 史實의 穿鑿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용한 古記錄은 간소화·평이화되고, 더욱이 고문서에 이르러서는 儒學的 입장 등으로 인하여 改竄되고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마저 있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과 관련해서 보자면 ①전후 두 차례 있었던 晋州城 전투를 '合體'시켜서 서술하고, ②慶長 2년의 巨濟島(唐島) 전투를 文祿 2년에 있었던 것으로 하고, ③慶長 2년의 蔚山 전투를 文祿 3년으로 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文祿의 役'과 '慶長의 役'의 구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최근의 柳澤昌紀씨의 연구성과(<信長公記と信長記, 太閤

記>, 堀新編 ≪信長公記を讀む≫ 수록 吉川弘文館 2009)에 따르면, 甫庵 <太閤記>는 太田牛一의 <豊國大明神臨時御祭礼記錄>과 같은 史觀을 답습한 것이며, 이른바 牛一太田이 묘사했던 <見取圖>를 체계적·疑似 실증적으로 편찬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史料'로서는 치명적인 문제를 품고 있으면서도, 甫庵 <太閤記> 이전의 秀吉 傳記本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완성도와 체계성을 가지며, 서술 스타일도 대체로 편년체 형식을 취한다. 내용적으로도 史實을 명쾌하게 재단·통제하는 일종의 구체적인 교훈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그 결과 마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秀吉傳(秀吉의 正傳)인 듯한 위치가 설정되며, 동시대는 물론 후세에 이르러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게 된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으로 한정했을 때, 甫庵 <太閤記>와 견줄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저술은 堀正意의 ≪朝鮮征伐記≫이다. 이 책의 성립에 관해서는 종래 中村榮孝씨가 주장한 寬永 中期說이 유력하지만, 최근에 위렘 부트씨는 慶長 말년에서 元和 초에 성립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朝鮮征伐記≫에 묘사된 전쟁－전후 어떤 일본 유학자의 시선으로 본 秀吉－>, 鄭杜熙·李璟珣 편저 ≪壬辰戰爭≫ 수록). 그 내용은 表題에서 명백하듯이 朝鮮出兵을 중심으로 한 秀吉의 傳記이며, 또한 朝鮮出兵을 대상으로 한 軍記物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인상적인 특징으로 많은 삽화와 히라가나(平仮名)가 섞인 문장을 들 수 있으며, 한자에는 토를 달아 놓았다. 따라서 정말로 유학자의 저작인지 의심스럽기도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 위렘 부트씨는, 본래의 텍스트는 한자와 가타카나(片仮名)를 섞어서 쓴 문장이며, 堀正意에게는 출판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 문제는 어찌됐든 ≪朝鮮征伐記≫는 朝鮮出兵를 다룬 가장 오래된 저작이며, 對戰國 특히 중국쪽의 동향에 상세하고 본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萬曆 34년(慶長 11, 1606) 중국에서 간행된 ≪兩朝平攘錄≫을 활용한 점을 들 수 있다. 강화교섭과 '慶長의 役'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했으며, 이 점을 유야무야 넘어간 甫庵 <太閤記>적인 서술은 여기서는 부정했다. 다만 전쟁 본래의 목적이었던 '大明國 정벌'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朝鮮征伐'로 轉化되었으며, 이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자세히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시기가 약간 내려가면 薩摩 島津家의 ≪征韓錄≫을 들 수 있다. ≪征韓錄≫은 藩主 島津綱久의 명으로 万治 연간부터 家老 島津久通가 總裁가 되어 편찬한 것이다. 관계된 고문서·고기록의 수록은 물론, 편찬할 때는 실제로 종군했던 家中의 古老에게 질문서를 돌리기도 했으며,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의 기억과 기록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주목할만한 성과이다. 島津久通는 跋文에서 "近代吾祖從朝鮮征伐, 振威武於異域, 立功業爾

邦家, 而令名遍四海"라고 했는데, 주로 島津義弘 및 久通의 祖父가 되는 島津圖書頭 忠長 등의 武功 顯彰에 치중하고 있다. 거의 동시기의 藩主家 顯彰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는 것이 筑前 黑田家의 ≪黑田家譜≫이다. 寬文 11년(1671) 藩命을 받은 貝原益軒이 ≪黑田家譜≫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延寶 6년에 ≪黑田家譜≫ 1·2권이 만들어졌으며, 다시 天和 원년에 개정이 행해졌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은 권지6에서 권지8에 이른다. 그 내용은 조선에 있어서 藩祖 如水·長政의 顯彰에 주안점이 있다. 기술 속에서 '朝鮮'을 '征伐'한다는 표현이 나오기는 하지만, 益軒도 전쟁 자체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전쟁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도 판단 보류라고 할만한 태도를 보인다. 즉 이들 家譜 편찬·藩祖 顯彰에 있어서 말로는 '朝鮮征伐'이라는 표현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열성적인 서술은 원래부터 대상 인물의 顯彰에 있으며, '朝鮮征伐'에 대한 언설을 적극적으로 정의하려는 태도는 느낄 수 없다.

'朝鮮征伐' 史觀이 근세 일본에서 정착되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山鹿素行의 저작을 잊을 수 없다. 延寶 원년(1673)에 성립한 ≪武家事紀≫는 그 이름대로 武家의 實事를 정리한 서적인데, 일본에서 처음으로 역사연구에 고문서를 광범위하게 활용한 저술로 알려져 있다. 그 실증성·합리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古案'으로 불리는 文書集이다. 여기에는 織田·豊臣·神君·今川·武田·北條·長尾(上杉)·毛利 기타 여러 家文書가 수록되어 있는데, ≪豊臣家古案(下)≫ 권31은 사실상 ≪朝鮮出兵關係史料集≫이다. 한편 素行은 日本中朝主義(日本中華主義)를 제창하면서 일본이야말로 "万邦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고 했다. 거기서는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의 總括도 "秀吉, 만년에 이르러 조선을 정벌했다. 그 勇胆, 고금에 뛰어나다. 무릇 조선이 本朝의 屬國藩屛이라는 사실은 그 옛날 神功皇后가 三韓을 정벌한 때부터의 일이며, 그러한 것은 대대로 舊記에 명백하다. (中略) 따라서 秀吉이 조선정벌을 시행한 것이고, 秀吉의 薨逝로 말미암아 그 공적이 불완전하다 해도 本朝의 武威를 異域에 떨친 일은 神功皇后 이후 秀吉의 治世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 日本中朝主義라는 이름 아래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위치시킴으로써 '朝鮮'과 '征伐' 사이에 자리 잡고 있던 위화감을 일거에 해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京都의 醫師 松下見林이 ≪異稱日本傳≫이라는 책을 편찬한다. ≪先哲談叢續編≫에 따르면, "見林은 매년 사람을 나가사키로 보내 외국서적을 사오게 하고 직접 이 책을 읽었으며, 또 子弟들에게도 이를 읽도록 했다. 따라서 보관하는 책이 이것저것 합쳐서 거의 10만권이나 되었으며,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책 빌리기를 청하는 자가 있으면 親疎를 묻지 않고 오로지 그가 원하는 바대로 따랐을 뿐이다. 절대로 아끼고 인

색한 빛이 없었다"고 한다. 元祿 戊辰(원년·1688) 9월 己亥에 쓴 自序에 따르면, ≪異稱日本傳≫의 '異稱'이란 '諸異邦之人稱之之語也'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異稱日本傳≫은 일찍이 異邦人이 '日本'을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관심에 따라서 정리한 서적이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해서는 중국의 ≪皇明實記≫, ≪兩朝平攘錄≫, ≪図書編≫과 조선의 ≪懲毖錄≫ 등을 참고하여 관계사료를 엮었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의 의의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논한 성격의 책은 아니지만, 이 전쟁과 관련된 해외 사료가 망라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클 것이다.

≪異稱日本傳≫에서도 채택한 ≪懲毖錄≫은 元祿 8년 일본에서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책에는 福岡藩 유학자 貝原益軒이 서문을 썼는데, 서문에서 "傳曰, 用兵有五, 曰義兵, 曰應兵, 曰貪兵, 曰驕兵, 曰忿兵, 五之中, 義兵与應兵, 君子之所用也, 傳又曰, 國雖大, 好戰則必亡天下, 雖安, 亡戰則必危, 好与亡二者, 可以不戒守哉, 曩昔, 豊臣氏之伐朝鮮也, 可謂貪兵兼驕与忿, 不可爲義兵"이라고 했다. 益軒은 전쟁을 義兵, 應兵, 貪兵, 驕兵, 忿兵의 5종류로 나눈 뒤에 秀吉의 朝鮮派兵을 貪兵·驕兵·忿兵이라고 했으며, 義兵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고 명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懲毖錄≫의 저자 柳成龍은 일본의 침략 때 宣祖 밑에서 左議政 겸 兵曹判書를 지낸 인물로서 그 후에 실각하지만 평양 수복 후에 領議政으로 부활하며, 京畿·黃海·平安·咸鏡道 體察使를 겸직했다. ≪懲毖錄≫은 그와 같은 정부 고관의 입장에서 이 전쟁을 전반적으로 논한 것이며, 집필 목적은 "내가 그것을 懲하여 후일의 재난을 경계"함에 있었다. 조선왕조는 국가 기밀의 유출을 우려하여 ≪懲毖錄≫의 일본 출판을 꺼렸지만 이후에도 유출이 근절되지는 않았다. 일본에서는 ≪懲毖錄≫을 얻음으로써 조선쪽과 관련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의 記述이 종합적이며 세부적인 것이 되어 갔다.

근세 중기가 되자 正德度 通信使의 응접을 담당했던 新井白石과 근세국가의 자립을 희망했던 荻生徂徠 등이 각각의 저술에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하여 논하고 있지만, 지면 관계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하겠다.

Ⅱ. 근세 후기 일본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위치 설정

18세기 후반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향력 있는 論陣을 폈던 인물은 本居宣長이다. 宣長의 역사 연구는 ≪古事記傳≫으로 상징되는 고대사 연구가 중심이기는 한데, 거의 같은 시기의 저작으로 安永 6년(1777) 12월에 成稿하고 寬政 2년에 간행된 ≪馭戎慨言≫

이 있다. 이 書名은 중국과 조선을 서쪽의 야만족인 '戎'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万國을 다스리는 天照大御神의 生國인 우리나라가 "본보기를 보인다", 즉 統御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은 日本中心主義와 尊內外卑에 입각하여 중국·조선과의 외교 교섭의 역사를 慷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권 4책의 구성인데,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은 下之卷下 전편에 걸쳐 있어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兩朝平攘錄≫·≪懲毖錄≫ 등 중국과 조선의 史籍도 근거로 삼고 있지만, 전쟁의 전 과정을 자세히 관찰했다기보다는 강화교섭 과정과 외교문서의 文言 등을 상세히 논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술 목적이 國學的 正名論을 밝히는 일에 있었다는 것은 명백하다. 또 이 전쟁이 별다른 성과도 없이 秀吉의 죽음으로 종결된 까닭은 秀吉이 자신의 위세에 의지하여 전쟁을 시작했고, 神功皇后의 神助를 얻으려 하지 않았던 점에 원인이 있으며, 무고한 조선 민중을 함부로 살육한 것도 神功皇后의 神意에 위배되는 일이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神功皇后의 '三韓征伐'에 대해서 秀吉의 조선 파병의 先驅가 되는 것으로 보고 양자의 관계를 順接的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 책에서는 秀吉의 外征을 아득한 神功皇后의 外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論斷하고 있다. ≪馭戎慨言≫에 대해서는 앞에서 본 ≪異稱日本傳≫의 요약문처럼 좋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지만, 한편에서 宣長의 의학의 스승인 武川幸順은 감명을 받고 당시의 攝政 九條尙實에게 헌상할 것을 시도하여 漢學者들 사이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약간 앞 시기의 일이 되는데, 大國隆正은 정통 國學의 學統을 논하려 했던 '學統弁論'(安政 4, 1857년 9월 序) 속에서 本居宣長을 평하여, "이 인물의 篤學은 古今에 유례가 없으며, 'テニオハ(譯註; 弖爾乎波, 옛날 조사·조동사·접미사·용언의 어미 등에 붙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던 말의 총칭. 한문을 훈독할 때 한자의 네 구석에 'テ·ニ·オ·ハ'를 붙였던 것에서 비롯함)의 三轉을 발명하여 ≪詞의 玉緖≫를 撰한 것은 語學의 開祖라고 할 수 있다. ≪馭戎慨言≫에서 護國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玉鉾百首≫에서 우리의 學意를 언급한 것 등은 他人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19세기에 들어서면 宣長이 죽은 뒤의 문하생인 伴信友가 일본 및 중국·조선·蝦夷·琉球 등의 異國·異域과의 교류사를 國學의 입장에서 논하며 ≪中外經緯傳≫을 저술한다. ≪中外經緯傳≫은 고대 日朝關係, 儒佛의 일본 전래, 義經北方傳說, 爲朝渡琉傳說, 日琉交涉史, 朝鮮出兵, 琉球征伐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전체 6부의 구성이며, 권2 중간에 "文化 3년 12월 伴信友稿"라는 말이 보인다. 本編에 朝鮮出兵의 경위를 간단하게 서술했는데, 오히려 중요한 것은 ≪中外經緯傳草稿第四≫부터 ≪同草稿第六≫까지의 부분일

것이다. 즉 '征戎遺文類第一'부터 '同第三'에 해당한다. '征戎'이라는 표현은 스승인 宣長의 '馭戎'을 답습한 것일까? 어찌됐든 '征戎遺文類'는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古文書集의 체제를 이룬다. 수록된 사료는 甫庵의 <太閤記> 등을 出典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 중에는 諸藩의 가문에 전래하는 문서들도 다수 인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료 수집 과정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經世家로 알려진 佐藤信淵은 같은 고향(出羽 秋田)의 國學者 平田篤胤과 관계를 형성해 가는 속에서 ≪日本書紀≫·≪古事記≫ 등의 고전에 기초하여 독자적인 국가관을 형성한다. 이 글에서의 관심에서 보자면 '宇內混同秘策'에서 대륙침공을 논하고 있는데, 出雲 松江과 長州의 萩에서부터 한반도의 東海岸을 經略하고, 博多에서부터는 한반도 남해안을 공략해야 한다는 具體案까지 제시하고 있다.

伴信友·佐藤信淵 등과 동시대인 文化·文政期에는 賴山陽이 ≪日本外史≫ 중에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을 대대적으로 취급하게 된다. 山陽은 廣島藩의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났고 國學의 영향을 받기도 했다는데, 다시 陽明學者인 大塩平八郎과 친교가 있었다. 그의 역사 사상은 '名分과 時勢의 2원론적 입장'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유학적 사상 요소인 '名分'을 기축으로 하면서 '時勢'라는 비유학적 사상 요소를 편입하여 역사인식을 전개하려고 했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서술은 <太閤記>, ≪朝鮮征伐記≫, ≪朝鮮軍記≫, ≪朝鮮物語≫, ≪淸正記≫, ≪懲毖錄≫ 등 내외의 軍記物語를 소재로 하여 한문으로 꾸민 것이다. 다만 엄밀한 고증의 성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에서 보자면 내용상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역사서술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문학작품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織田家의 部將이던 무렵부터 秀吉은 信長을 위하여 "韓 및 明에 대한 공격을 요청"했는데, 그 후 "豊臣씨의 치세에 이르러 明의 백성이 혹은 와서 투항하는 자가 있으며, 明主 朱翊鈞(神祖·萬曆帝)이 失政을 하고, 武備를 갖추지 않았음을 듣고 더욱 이를 엿보려고 생각했다"고 한다. ≪日本外史≫ 자체는 인물 중심의 기술인데,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서도 加藤淸正과 小西行長의 대립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行長은 淸正을 시기했다. 淸正은 三成에게 미움을 받았고, 行長은 이를 즐겼다. 서로가 상대를 헐뜯었다"고 하여 石田三成을 끌어들임으로써 淸正과 行長의 대립을 '세키가하라 전투(關ヶ原合戰)'의 伏線에 자리매김하는 구성을 이루고 있다. '時勢'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역사의 흐름을 보려고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弘化 원년에 川越藩에서 學問所 博喩堂藏版으로 ≪日本外史≫가 출판되었고, 다시 嘉永 원년에는 賴家에서 교정을 추가한 책이 大坂에서 출판되었다. 川越本·賴氏本

모두 환영을 받고 출판을 거듭했으며, 諸藩의 藩校에서 교과서로 채용했고, 明治 이후에도 몇 종류의 판본이 출판되었다. '日本外史'는 幕末에서 明治에 걸쳐 많은 독자를 가진 '歷史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세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史實' 이해는 물론 역사 서술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山陽의 ≪日本外史≫와 함께 幕末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을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은 후기 水戶學의 學統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저작은 天保 2년(1831)에 간행된 水戶彰考館 편수 총재 川口長孺의 ≪征韓偉略≫ 전5권이다. 간행할 당시에 書肆(大坂·河內屋茂兵衛, 江戶·北島順四郎, 江戶·西宮弥兵衛)가 게재했던 '廣告文'은 당시의 사회가 이 저작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려 했는지를 엿보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아래에 인용해 둔다.

> 豊太閤의 조선정벌은 우리 일본의 武威를 외국에 떨친 盛擧로서 國史를 편수하는 자가 考究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漢土·朝鮮의 書, 日本 諸家의 秘册을 인용하여 추호의 私感도 더하지 않았으며, 年月·地理를 推考하고, 사실의 경과·功의 實否를 考正했다. 조선정벌의 實錄이다.

간단히 요약한 기사지만, 여기에 적었듯이 ≪征韓偉略≫은 室町 단계의 日朝關係를 약술한 뒤에 ≪明史≫, ≪兩朝平攘錄≫, ≪懲毖錄≫, ≪朝鮮征伐記≫, ≪太閤記≫, ≪豊臣秀吉譜≫, ≪歷代鎭西要略≫, ≪黑田家記≫, ≪鍋島家記≫ 등 당시로서는 '正統'으로 생각되는 史籍·軍記類를 명시적으로 인용하면서 天正 14년부터 慶長 3년에 이르기까지의 외교·전쟁 상황을 한문으로 정리한 책이다. 그 결과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하여 매우 권위있는 저술로 다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文政 연간에 편찬하기 시작한 薩摩藩의 ≪舊記雜錄≫에서도 관련 부분을 인용하게 된다.

川口長孺의 ≪征韓偉略≫이 나오고 머지않아 역시 水戶彰考館의 靑山延光이 ≪征韓雜志≫을 정리하였다(天保 10, 1839년의 序가 있으며, 이 무렵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다양한 서적에서 '朝鮮出兵'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翁物語≫, ≪碎玉話≫, ≪常山紀談≫, ≪津田家譜≫ 등과 그밖에 朝鮮의 승병장으로 유명한 惟政의 ≪四溟堂集≫ 등을 出典으로 하고 있으며, 자료적으로는 ≪征韓偉略≫과 중복을 피하고 있다. 卷末의 識語에는 "當時豊公自謂吾將平定韓明, 奉 天子駕于西土, 又謂以我之智, 行我之兵, 如利刀破竹大水崩沙, 何國不臣, 以是言之, 明人畏我如虎, 朝鮮畏我如虎者不亦宜乎, 嗟乎使豊公永年, 則其必平定韓·明歸我版図矣, 雖其不得遂志, 然威靈遠被万方讐服者, 其功固不可誣也"라고 되어 있으며, "神州武威之震于万國"한 秀吉이 도중에

죽지 않았다면 朝鮮(韓)과 中國(明)을 그 판도에 편입했을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秀吉의 外征을 '偉績'으로 찬양하는 태도이다. 후기 水戶學은 '治敎一致'를 취지로 하고 있으며, 藩政의 실상과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특징으로 한다. 여기서부터 대외적 위기의식이 싹트고 攘夷思想의 源流가 되어 가지만, 이와 같은 思潮 속에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하여 비상하게 높은 평가를 내리게 된다. 거기에는 德川體制를 옹호하기 위하여 秀吉을 비난한다는 논리구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후에도 水戶藩에서는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참가했던 大名家에 대하여 事績調査를 실시했던 모양이다. 예를 들면 日向 飫肥藩의 伊東家에 관한 ≪征韓偉勳錄≫의 '序'에 "이 1卷은 天保 11년 水府가 (伊東)祐相公에게 御內命했고, 아울러서 落合敬助兼賡·安井仲平 朝衡에게 분부하여 御家來 기타 諸書 속에서 征韓에 관한 사실만을 拔粹考証해서 편찬한 서적의 副本이다"라는 대목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調査의 반영인지 會澤安(正志齋)의 ≪退食間話≫에서는 "豊太閤이 朝鮮을 정벌하고 威를 해외에 떨쳤다"고 하며, 藤田東湖의 ≪弘道館述義≫에서는 "豊太閤의 雄才大略 또한 海內外를 압도했다"고 언급했고, 그 후의 水戶學 관계의 저작에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언급이 散見되기에 이른다.

Ⅲ. 근대 일본의 성립과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日露戰爭이 한창이던 1905년에 史學會가 간행했던 ≪弘安文祿征戰偉績≫ 등으로 상징되듯이 전쟁 전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연구가 국위선양의 일익을 담당했으며, 또한 현실문제로서 '한국 병합'과 아시아 침략에 깊이 관여했다는 측면은 부정할 수 없다. 근대 일본의 성립기에 '征韓論'으로 상징되는 것처럼 朝鮮半島를 일본의 침략대상으로 간주하는 이데올로기가 대두한다.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자리매김이 이러한 움직임과 상관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은 용이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단계에 있어서의 專論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유감스럽지만 明治 전반기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이 어떤 위치를 부여받고 있었는지는 이후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좁은 식견에서 말하자면, 근대 일본에 있어서 본격적인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연구는 한반도를 둘러싼 日淸 간의 대립을 배경으로 시작되었고, 발전해 갔다. 1893년(明

治 26)에 간행된 木下眞弘의 저서 ≪豊太閤征外新史≫(青山堂 간행)는 그 효시로 생각되는 저술이다. 본서는 권1 '起源'으로 시작하여 '壬辰紀'부터 '戊戌紀'에 이르며, 제16권의 '後紀'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말할 필요도 없이 '壬辰'은 文祿 원년, '戊戌'은 慶長 3년에 해당하므로 전후 7년에 걸친 전쟁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간행된 것은 ≪壬辰紀≫ 뿐이었으므로 계획은 文祿 원년만으로 중단된 모양이다. 明治期의 간행이기는 하지만 한문체로 기록했으며, 典據한 사료는 일본 사료에 그치지 않고 중국·조선의 典籍에도 이른다. 다양한 해외사료를 망라한 점은 ≪豊太閤征外新史≫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 있다. 宮地正人이 校注한 ≪維新舊幕比較論≫(岩波文庫, 1993년)의 저자로 알려진 木下眞弘은 肥後國 菊池郡에서 출생했고, 私塾 古耕舍를 개설했으며, 熊本藩의 時習館에서 訓導로 일했던 인물이다. 나중에 敎部省에서 근무했고, 太政官·內務省 등을 거쳐서 1879년(明治 12)부터는 修史館(종래의 修史局이 조직을 개편한 것)에서 근무했다. 절친한 사이였던 竹添進一郎이 弁理公使로서 조선에 부임하게 되자 外務一等屬의 자격으로 서울에 왔다. 木下는 甲申事變과 관련되어 일본으로 귀환하기까지 대략 2년 동안 서울에서 지냈다. ≪豊太閤征外新史≫의 간행은 그로부터 10년 쯤 뒤의 일이지만,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관심은 조선에 머물던 시절에 싹텄을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前關白太政大臣豊臣秀吉欲征明, 先遣兵入朝鮮'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며, 書名에서도 명백하듯이 주된 교전국은 조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明國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역사서술이었다.

다음으로, 木下眞弘의 가르침을 받은 松本重愛이 이듬해에 ≪豊太閤征韓秘錄≫ 제1집을 간행한다(成歡社, 1894년). 이 책은 이른바 기초사료집이며, 제1집에는 <朝鮮征伐記>(堀正意 저술 부분), <吉野日記>, <南大門合戰記>(天野源右衛門記), <征西日記> 등 4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외의 여러 사료도 제2집 이후에 계속적으로 간행할 예정이었다. 이 책 역시 계획상으로는 중단된 모양인데, 제2집 이후는 확인할 수 없다. 그 일은 어찌됐든 이 책을 간행했던 의도는 머리말에 명백하다. 즉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遠征의 師를 배출한 것이 단지 세 번 뿐"이라고 하고, "後陽成天皇의 治世에 이르러 豊臣太閤秀吉이 明國을 정벌하려고 大軍을 發하여 朝鮮 및 明軍을 擊破했으며, 이것이 세 번째이다. 그리하여 太閤征韓의 役이야말로 사실은 朝鮮을 征伐하려던 뜻이 아니며, 조선에서 길을 빌려 장차 支那 400여州를 공격하고, 이어서 歐羅巴마저 併呑하여 우리의 武威를 萬邦에 크게 떨치려는 大希望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한다. 歐羅巴 併呑 운운한 것은 시국에 영합하는 발언이지만, '征韓'이라고 하면서 전쟁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明

공략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木下의 저술과도 공통적인 자세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료집 간행을 기도했던 배경에 대해서 松本重愛은 "지금이야말로 東洋이 다사다난한 때이며, 日淸韓 3국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이 역사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자 하는 바이지만, 古來로 이 일을 기록한 것이 대개 杜撰粗笨하여 그 사실을 오해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材料를 얻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今日에 이르러서 이 역사를 연구하는 데에 材料로 제공하고, 아울러서 이 위대한 사업을 널리 世人에게 알림으로써 志氣養成에 一助하기를 바랄 뿐"이라고 한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며, 덧붙여서 이 책의 緖言은 "明治 27년 9월 17일 平壤大捷의 소식을 접하고" 쓴 것이었다.

이처럼 근대 일본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연구의 효시는 위와 같이 日淸의 대립이라는 현실을 앞에 두고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상징하듯이, 昭和 전쟁 전기에 이르는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연구는 현실의 정치·외교 문제와 깊은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많은 연구성과는 당시의 역사인식과 세계관을 전제로 서술된 것이며,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문제가 될 만한 점도 많다. 이러한 상관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하겠지만, 이 시기에 행해졌던 池內宏씨와 中村榮孝씨의 '실증'적인 연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익하다. 그밖에도 伴三千雄씨에 의한 성곽 연구, 전후로 이어지는 黑田省三씨의 연구, 파병 목적을 勘合貿易의 부활에서 구하는 논의를 부정했던 田保橋潔씨의 지적(<壬辰役雜考(제1회)>, ≪靑丘學叢≫ 제14호 1933) 등이 있다. 동일한 ≪靑丘學叢≫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있어서 기독교의 전개를 논했던 山口正之씨의 연구는 일찍부터 조선인 被擄人에게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對馬宗家文書의 現狀에 비추어볼 때, 豊臣政權에 관한 宗家文書를 소개했던 武田勝藏씨의 연구를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伯爵宗家所藏豊公文書と朝鮮陣> ≪史學≫ 제4권 제3호 1925·<宗家文書の中より> ≪史學≫ 제5권 제3호 1926·<宗家文書より(二)>, ≪史學≫ 제5권 제4호, 1926년). 또한 蘇峰 德富猪一郎씨의 ≪近世日本國民史 豊臣氏時代 朝鮮役≫과 參謀本部에서 편찬한 ≪日本戰史 朝鮮役≫은 사료 비판 등에 여전히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으며, 전쟁에 대한 망라적 파악과 구체적 사실의 析出이라는 점에서 지금도 다른 연구를 압도하는 점이 있다. 매우 난폭하기는 하지만 戰前·戰中期에 진행되었던 일련의 연구는 국가주의적인 경향과 '실증주의적'인 경향을 두 축으로 하면서 진행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각론적인 연구에 있어서도 개괄적이긴 하지만 현재로 이어지는 문제점의 제시도 상당히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三鬼淸一郎씨는 朝鮮史編修官의 이력을 가진 中村榮孝씨의 연구가 조선총독부의 修史事業과 교육행정이 불가분의 형태로 진행되었던 점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朝鮮役研究の一齣－中村榮孝の業績をめぐって－', 三鬼淸一郎編 ≪織豊期の政治構造≫ 吉川弘文館 2000).

Ⅳ. 패전 이후 80년대에 이르는 연구 동향

패전 후에는 종전의 실증연구를 계승하여 전후 역사학의 조류 속에서 새로운 관점이 도입된다. 전형적인 경우의 하나는 1954년에 岩波新書로 간행되었던 鈴木良一씨의 ≪豊臣秀吉≫일 것이다. 즉 그 책의 후기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다소 길지만 인용해 둔다.

> 다소나마 위로되는 것은 조선 민족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침략자의 자손이며, 침략자 자신이었던 우리가 조선 민족의 고통을 알 수는 없다. 단지 침략의 역사를 쓸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쓰는 일이 실제로는 침략으로 우리 자신을 타락시키고, 그리하여 이제 거꾸로 독립을 상실하고 상처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며, 일본 역사가의 엄숙하고도 즐거운 의무라고 생각한다.

鈴木의 글은 다시 "≪'文祿慶長의 役'≫에 관한 연구는 있어도 침략과 저항의 역사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은 슬프지만, 진정으로 그런 역사를 써 보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기쁨이다." 라고 이어진다. 전쟁 전의 연구성과를 '≪'文祿慶長의 役'≫ 연구'로 일괄하면서, 그 연구에서 '침략과 저항'이라는 관점이 빠져 있던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 책에서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조선침략' 과정을 상술하고 있으며, 조선왕조와 明軍의 내부를 분석한 기술도 있다.

1953년에 제기되었던 安良城盛昭씨의 문제 제기에서 발단이 된 '太閤檢地論爭', 그리고 幕藩制의 '구조적 특질'이 논의되는 속에서 '조선침략'을 豊臣政權論·統一政權論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기에 이른다. 60년대의 연구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朝尾直弘씨는 豊臣政權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대륙출병'이 필연적이었다고 언급했으며, 佐々木潤之介씨는 豊臣政權의 전체적인 정치과정이 '조선침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또 山口啓二씨는 豊臣政權이 전국을 통치하는 封建

國家權力으로 존재했던 것을 가장 큰 구조적 특질로 들고, 스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諸大名에 대한 '끊임없는 軍役'의 부과가 불가피하며, 전쟁상태를 전제로 하는 '끊임없는 軍役'이 통일전쟁 종료 후 해외침략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도 필연적인 동향이라고 설명했다. 山口씨는 幕藩權力에 있어서 편성 원리의 본질을 知行·軍役關係에서 구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三鬼淸一郎씨가 <朝鮮役에 있어서 軍役體系에 관하여>(≪史學雜誌≫ 75편 2호 1966)에서 豊臣·德川 사이의 격차를 찾아내는 佐々木씨의 '軍役論'을 부정하고, '朝鮮役'을 계기로 통일적이며 봉건적인 軍役體系가 영주계급 전체를 포섭하면서 달성되었다고 했다. '日本近世史' 연구가 幕藩制 구조론 및 여기에 연결되는 國家論이라는 조류에서 규정되었기 때문에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대한 연구도 불가피하게 幕藩制 구조론과 國家論의 구조분석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여기서 논의되었던 것은 추상적인 軍役體系로서의 '조선침략'이며, 연구가 반드시 鈴木가 의도했던 방향으로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1970년대에는 일본의 대륙침략을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포착하고 아시아사적·세계사적인 위치 설정을 시도하려는 연구 동향이 시작된다. 60년대로 이어지는 山口啓二씨·佐々木潤之介씨·朝尾直弘씨·三鬼淸一郎씨 등의 연구가 規定的인데, 여기에 더하여 旗田巍씨와 石原道博씨 등의 동양사 연구자, 전쟁 전부터 계속되는 中村榮孝씨, 그리고 중세 일본의 대외관계사, 특히 對馬를 의식한 日朝관계 분석에 진력했던 田中健夫씨(≪中世海外交涉史の硏究≫ 東京大學出版會 1959·≪中世對外關係史≫ 東京大學出版會 1975) 등의 勞作은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75년 小學館版 ≪日本의 역사≫ 시리즈로서 藤木久志씨가 ≪織田·豊臣政權≫을 저술했다. 서유럽 식민제국의 진출도 추가해서 격동하는 동아시아 세계 속의 민중들에게 종교 분쟁과 통일 권력, 통일과 침략은 무엇이었던가 하는 의문 아래 이 通史가 서술되었고, 조선 침략이 가진 심각한 실태를 다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 해에 동일 시리즈로 간행한 朝尾直弘씨의 ≪鎖國≫은 元和期 이후를 대상으로 하는 저술인데 근세 일본을 동아시아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日本型華夷秩序'의 성립을 논했다는 점에서 이후의 연구에도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또 1976년에는 內藤雋輔씨의 ≪文祿·慶長의 役에 있어서 被擄人 硏究≫가 간행되었다(東京大學出版會 1976). 內藤씨는 '序'에서 "豊臣秀吉의 文祿(壬辰)·慶長(丁酉)의 役의 본질과 그 영향에 대하여는 이미 많은 論考가 있지만, 그러나 정치와 외교·군사 등에 관한 문제 이외에 이 전쟁이 양국 민중에게 준 최대의 고뇌는 전쟁으로 인한 생활의 파괴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관심의 소재를 언급하고 조

선인·일본인 被擄者의 여러 가지 실상을 그려냈다. 동시에 豊後國 臼杵 安養寺의 종군승려 慶念의 일기를 소개하면서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 다시 歷史學硏究會는 1977년도 대회의 테마로서 '민족과 국가'를 제시하고, 綜合部會에서 北島万次씨는 <秀吉의 朝鮮侵略과 幕藩制國家의 成立>, 矢澤康祐씨는 <≪'壬辰倭亂'≫과 朝鮮>을 발표했다. 北島씨가 발표한 논문의 기조는 內藤씨의 저작 등을 토대로 조선 민족에게 압박을 가했던 침략전쟁을 통해서 일본의 봉건영주제는 히에라르키(Hierarchie; 신분제도)를 고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일본 민중에 대한 지배체제를 강화했다고 했으며, 한편 矢澤씨는 '壬辰倭亂'기를 통하여 조선 사회의 구조적 변화, 신분적 질서의 변동이 크게 진전된 것을 논하고, '壬辰倭亂'의 경험이 18세기 이후 자립사상의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70년대 후반에 시작되는 이들 연구는 일찍이 鈴木良一이 주장했던 '침략과 저항의 역사'에 근접하는 것이며, 동시에 전쟁 자체를 주제로 하는 다음 연구단계를 향한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이 시기는 倭城硏究會 등이 한반도 남쪽에 남아 있는 일본식 성곽의 답사 등을 진행했고, 그 성과는 79년에 보고서≪倭城Ⅰ≫로 공표하여 오늘날 활발한 '倭城'연구의 효시가 된다. 현지답사가 그다지 용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유적과 유물로부터 전쟁의 실태에 접근하는 고고학적 수단은 패전 후 부득이 중단되어 있던 형편이었으며, 그런 의미에서도 보고서 ≪倭城Ⅰ≫이 硏究史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 한반도에 축성된 일본식 성곽, 이른바 '倭城'에 대하여는 전쟁 이전에 小田省吾씨와 伴三千雄씨 등이 이미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이와 같은 전쟁 이전의 연구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福島克彦의 <戰前의 倭城硏究에 대하여>(城郭談話會編集·발행 ≪倭城硏究≫ 창간호 1997)에 수록되어 있다. 전후에는 1961년에 부산대학교내 韓日文化硏究所가 정리한 ≪慶南의 倭城趾≫ 등이 알려져 있는데, 일본 쪽에서는 보고서 ≪倭城Ⅰ≫ 이후 왕성한 연구를 보기에 이른다. 그 후의 주된 연구성과만을 예로 들면, 1985년에 佐賀縣 敎育委員會가 ≪文祿·慶長의 役 城跡圖集≫을 정리하고, 城郭談話會에 편집·발행한 ≪倭城硏究≫가 창간호부터 제5호에 이르렀으며(1997～2002년), 최근에는 白峰旬의 ≪豊臣의 城·德川의 城－戰爭·政治와 城郭－(校倉書房 2003)과 黑田慶一편 ≪韓國의 倭城과 壬辰倭亂≫(岩田書院 2004) 등이 간행되었다. 또한 1998년 神戶大學 文學部가 ≪韓國慶尙南道倭城趾調査報告≫를 내고, 高瀨哲郎씨 등을 비롯한 佐賀縣立名護屋城博物館의 계속적인 연구도 있다.

80년대로 접어들면 北島万次씨가 ≪朝鮮日々記·高麗日記－秀吉の朝鮮侵略とその歷史的告發－≫을 公刊한다(そしえて 1982). 書名에 있는 ≪朝鮮日々記≫란 內藤雋輔씨가 소개한 慶念의 일기, ≪高麗日記≫는 肥前의 田尻鑑種이 남겼던 제1차 침략 때의 기록이다.

이런 書名에서 명백하듯이 北島씨의 저작은 전쟁 과정 그 자체를 문서·기록에 의하여 충실하게 기술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副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찍이 鈴木良一씨가 제창했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연구에 있어서 제3축을 명확하게 의식했던 저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60년대·70년대의 연구로 政權論·幕藩制 構造論을 형성하면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은 불가결의 구성요소가 되고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왔지만, 전쟁 자체에 관한 역사서술이 그다지 풍부한 편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구판 岩波講座 ≪日本歷史 近世1≫(岩波書店 1963)에 수록된 朝尾直弘씨의 '豊臣政權論'은 그 후의 연구 동향에 지대한 영향을 준 好論이지만, 실제로 그의 글에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언급은 거의 없다. 이 시기의 연구상황을 상징하듯이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이라는 팩트가 빠진 채 豊臣政權論이 정립되었던 셈이다. 조선사 연구분야에서 의병과 조선 민중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춘 연구가 왕성하게 진행되었던 것과, 중국사의 岡野昌子씨가 전쟁의 승패와 진입 경로의 고증, 지휘관의 동향 등이 아닌 일반 병사와 민중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이 전쟁을 다루려고 했던 것 등과 대조적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藤木久志씨의 말을 빌리면,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은 오랫동안 "豊臣政權論의 부속물과 같은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서 80년대 후반에는 朝尾直弘씨의 ≪天下一統≫(體系日本の歷史 8 小學館 1988)이 간행된다. 75년의 ≪鎖國≫에 선행하는 시기를 대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日本型華夷秩序'를 지탱하는 것으로서 '武威'의 존재를 지적하고, 秀吉의 대외 강경노선도 '武威'의 발로로서 위치를 설정하게 된다.

어찌됐든 內藤씨와 北島씨에 의한 전쟁사 서술로 전후의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연구에는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의미에서 대륙침략의 기반이 되었던 九州를 대상으로 森山恒雄씨의 ≪豊臣氏九州藏入地硏究≫도 정리되었으며(吉川弘文館 1983), 또한 藤木久志씨는 ≪豊臣平和令과 戰國社會≫ 속에서 豊臣政權에 있어서 동아시아 외교의 重層性을 지적하고, 그 전제가 되었던 조선침략의 위치 설정을 시도하고 있다(東京大學出版會 1985). 여기서 藤木씨는 秀吉이 明과 南蠻을 대등한 교역국으로 삼는 한편, 조선과 류큐, 더 나아가 대만·필리핀(小琉球)을 국내의 大名에 준하는 '惣無事令'의 대상, 요컨대 복속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하며, 豊臣秀吉의 외교가 이원적·중층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했다. 일찍이 대륙침략의 의도를 둘러싸고 勘合貿易 부활설과 영토확장설이 양자택일적으로 주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원래 현상은 그러한 단락적인 태도를 허용하지 않지만, 藤木씨의 지적은 이러한 폐쇄감을 타파하는 단서를 제공했다

고 볼 수도 있다. 폭넓은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전쟁의 의의를 새롭게 밝히려는 上垣內憲一씨의 通史 ≪공허한 출병 秀吉의 文祿·慶長의 役≫도 1989년에 저술되었다(福武書店 1989).

80년대에 진행된 豊臣政權 연구의 자극적인 성과가 연이어 하나의 책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1990년은 획기적인 해였다. 즉 高木昭作씨의 ≪日本近世國家史研究≫(岩波書店), 山本博文씨의 ≪幕藩制의 成立과 近世國制≫, 北島万次씨의 ≪豊臣政權의 對外認識과 朝鮮侵略≫(모두 校倉書房) 등이다. 高木씨의 저술은 대륙침략을 정면에 둔 것은 아니지만, 이것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惣無事令'과 이른바 '身分統制令', 근세적 군단편성의 실상을 논하고, 山本·北島 두 분의 저술은 豊臣政權 아래의 島津씨 領國의 실상에 접근한 것이었다.

Ⅴ. 관심의 다양화와 문제점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 연구는 이미 政權論의 '부속물'이 아니다. 특히 90년대 이후는 北島万次씨의 작업에 끌려가는 형태로 관심도 다양화하고, 전쟁의 추이는 물론 병참보급, 강화교섭, '倭城', 降倭·義兵·被擄 등 조선 사회에 관한 다양한 문제 등 전쟁이 가진 각양각색의 측면에 대하여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共同報告書≫에 수록된 학설사 정리 및 문헌목록이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그대로이다. ≪共同報告書≫ 간행 이후 특필할만한 연구로는 太田秀春씨의 ≪朝鮮의 役과 日朝城郭史研究≫(清文堂 2005)와 津野倫明씨에 의한 일련의 연구를 들지 않을 수 없다(<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毛利吉成の動向>, 高知大學 ≪人文科學研究≫ 9호 2002·<慶長の役における長宗我部元親の動向>, 黑田慶一編 ≪韓國の倭城と壬辰倭亂≫ 수록 2004·<慶長の役における黑田長政の動向>, ≪海南史學≫ 42 2004·<慶長の役における鍋島氏の動向>, ≪織豊期研究≫ 8 2006·<朝鮮出兵における鍋島直茂の一時歸國について>, 高知大學 ≪人文科學研究≫ 13호 2006 등). 전자는 한일 간에 전개되는 성곽의식과 일본의 軍勢와 조선 사회의 교류라는 지금까지 없었던 참신한 측면에서 전쟁을 고찰하려던 것이었다. 연구 수단으로서도 조선쪽 사료의 적극적인 활용이 주목되는데, 村井章介씨의 <朝鮮史料에서 본 '倭城'>(≪東洋史研究≫ 66-2 2007) 등과 함께 後學의 연구 스타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한편, 津野씨에 대하여는 '慶長의 役'(丁酉再亂)에 관하여 매우 상세한 史實을 명확히 했던 점

을 크게 평가할 수 있다. '文祿의 役'과 비교할 때 연구가 별로 없었던 '慶長의 役'에 관한 연구는 朝鮮日々記研究會編 ≪朝鮮日々記를 읽는다, 진종승려가 본 秀吉의 朝鮮侵略≫(法藏館 2000)으로 한층 더 풍부해졌지만, 여기에 津野씨의 실증적인 연구가 더해짐으로써 보다 충실해져 가고 있다.

이밖에도 曾根勇二씨는 豊臣家 奉行人의 동향에 주목하면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과 관련된 토픽을 취급하고(≪近世國家の形成と戰爭体制≫ 校倉書房 2004), 中野는 秀吉의 朱印狀을 '定点'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으로 豊臣政權에 의한 전략의 체계화를 시도하고 있다(≪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최신 연구로서 거론할만한 것은 많지만 지면 관계상 일단 위의 연구를 예로 드는 것으로 그치겠다.

≪共同報告書≫에서는 '今後의 研究課題'로 여섯 가지 논점을 제시했다. 현재 이들 과제가 여전히 기대되는 연구과제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각각의 논점이 반드시 동일한 차원은 아니다. 1에서 4의 과제는 전쟁 자체에 관련된 것이며, 5는 전략, 6은 오히려 정치로서의 넓은 의미의 '戰爭'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拙著에서도 언급했지만, 사견으로는 먼저 이들의 의식적인 구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전제를 토대로, 예를 들어서 '6 동아시아의 國際秩序'에 관하여 부언하자면, 전투의 종식과 전쟁의 종결을 동일한 차원에서 논하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李啓煌씨의 ≪文祿·慶長의 役과 동아시아≫는 전투종결 후의 국제관계를 상세하게 논했던 매우 귀중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배우는 한편, 中野는 ≪文祿·慶長의 役≫(戰爭の日本史 16 吉川弘文館 2008)을 정리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그 책에 양보하고 싶다. 또한 ≪共同報告書≫ <今後의 研究課題>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논점으로 류큐와 조선의 관계를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면 1998년에 간행된 邊土名朝有씨의 ≪琉球의 朝貢貿易≫(校倉書房)에는 ≪明實錄≫ 등 중국측 사료에 기초한 전쟁·강화교섭의 추이를 서술한 논고가 수록되어 있으며, 계승해야 할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다.

* 會議報告 후에 明石書店에서 鄭杜熙·李璟珣 편저 ≪壬辰戰爭≫의 일본어판(金文子 監譯·小幡倫裕 譯)이 간행되었다. 어떤 의미에서 '文祿·慶長의 役'(壬辰倭亂)에 관한 연구의 현재의 도달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에 수록된 위렘·부트씨의 논고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했는데 분량이 많은 이유도 있고, 전반적인 論究는 다른 기회로 미루겠다.

【참고문헌】

근세의 著作에 대해서는 史籍集覽과 日本思想大系 등의 叢書類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근대 이후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본문에서 기본 데이터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이하의 리스트는 단행본을 중심으로 한다.

木下眞弘, 1893 ≪豊太閤征外新史≫ (青山堂)
松本愛重, 1894 ≪豊太閤征韓秘錄≫ (成歡社)
史學會編, 1905 ≪弘安文祿征戰偉績≫ (富山房)
池內 宏, 1914 ≪文祿·慶長の役≫ 正編 第1(南滿州鐵道株式會社)
德富猪一郎, 1921~1922 ≪近世日本國民史 朝鮮役≫ (民友社)
參謀本部編, 1924 ≪日本戰史 朝鮮役≫ (偕行社)
池內 宏, 1936 ≪文祿·慶長の役≫ 別編 第1 (東洋文庫)
中村榮孝, 1939 ≪文祿慶長の役(大日本戰史3)≫ (三敎書院)
鈴木良一, 1954 ≪豊臣秀吉≫ (岩波新書, 岩波書店)
石原道博, 1964 ≪文祿慶長の役≫ (塙書房)
日本思想史硏究會 編, 1965 ≪日本における歷史思想の展開≫ (吉川弘文館)
中村榮孝, 1969 ≪日鮮關係史の硏究≫ 中 (吉川弘文館)
山口啓二, 1974 ≪幕藩制成立史の硏究≫ (校倉書房)
內藤雋輔, 1976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被虜人の硏究≫ (東京大學出版會)
三鬼淸一郎, 1981 <小宮山楓軒と朝鮮役> ≪茨城縣史硏究≫ 40
三鬼淸一郎, 1981 <江戶時代における朝鮮役の評価について> ≪歷史評論≫ 373
北島万次, 1982 ≪朝鮮日々記·高麗日記≫ (そしえて)
森山恒雄, 1983 ≪豊臣氏九州藏入地の硏究≫ (吉川弘文館)
藤木久志, 1985 ≪豊臣平和令と戰國社會≫ (東京大學出版會)
鄭 樑生, 1985 ≪明·日關係史の硏究≫ (雄山閣)
北島万次, 1990 ≪豊臣政權の對外認識と朝鮮侵略≫ (校倉書房)
山本博文, 1990 ≪幕藩制の成立と近世の國制≫ (校倉書房)
崔 官, 1994 ≪文祿·慶長の役≫ (講談社メチエ)
李啓煌, 1997 ≪文祿·慶長の役と東アジア≫ (臨川書店)
邊土名朝有, 1998 ≪琉球の朝貢貿易≫ (校倉書房)
中野 等, 1999 ≪豊臣政權の對外侵略と太閤檢地≫ (校倉書房)
朝鮮日日記硏究會 編, 2000 ≪朝鮮日日記を讀む 眞宗僧が見た秀吉の朝鮮侵略≫ (法藏館)
黑田慶一 編, 2004 ≪韓國の倭城と壬辰倭亂≫ (岩田書院)
太田秀春, 2005 ≪朝鮮の役と日朝城郭史の硏究≫ (淸文堂)
中野 等, 2006 ≪秀吉の軍令と大陸侵攻≫ (吉川弘文館)

中野 等, 2008 ≪文祿·慶長의 役(戰爭の日本史16≫ (吉川弘文館)
太田秀春, 2008 ≪近代の古蹟空間と日朝關係≫ (淸文堂)
鄭杜熙·李璟珣 編著, 2008 ≪壬辰戰爭≫ (金文子 監譯·小幡倫裕 譯, 明石書店)